

에너지안보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

선우현범 회장등 13명 아태지역 포럼 참석

WEC 아태지역포럼이 지난 10. 18~19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21세기의 에너지와 환경: 아태지역의 과제와 협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지역포럼은 일본동력협회(WEC일본국내위원회)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열렸으며, 20개국 및 8개 국제기관에서 약 600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13명의 관련인사들이 참가하여 논문발표 및 패널토의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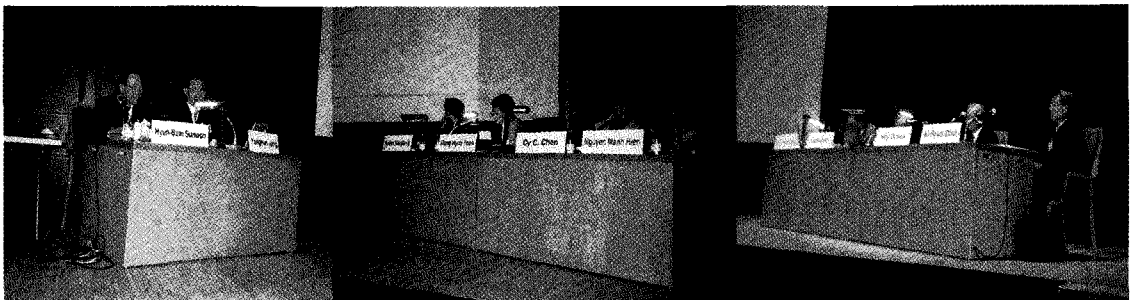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동지역 에너지부문의 최대 현안인 에너지안보문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카와노 장관은 기초장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북미-중남미」,「유럽-러시아/북아프리카」수준의 지역차원의 블록형성을 제시하였고, 전기사업연합회 오타 회장은 일본 전기사업의 자유화와 관련 전기공급의 高신뢰도 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점진적인 구조개혁을 옹호했으며,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호주의 NRG아시아-퍼시픽社 하이레스 사장은 IPP사업자의 입장에서 에너지산

업의 구조개혁, 특히 전력사업의 구조개편과 관련 나타나는 글로벌 추세를 설명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원간 비교를 통하여 석탄이 경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최적의 연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부문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글로벌 추세는 아태지역에도 계속 될 것이며, 구조개혁에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이슈들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수송·연계를 위한 지역협력프로젝트’ 세션의 좌장으로 참여한 동덕엔지니어링 선우현범 회장은 세션 서두발표에서 1997년 결성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포럼’(NAGPF)의 국제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연구활동을 통하여 해당 국제기관 및 정부에 정책적인 조언과 동북아시아에 국경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가로막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화석연료부문의 구조개혁이 연료가격과 공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차원의 공동대응 노력이 있어야하고, 고신뢰도 라는 전기공급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구조개혁시 국별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 오타 (일본)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은 세계적 추세이며,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 ... 하이레스 (호주)

화석연료의 자급능력 강화, 개방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경로 진입을 위해서는 아태지역에 '지역에너지공동체' 개념이 도입되어야 ... 최기련 (한국)

급력확보에 미치는 영향' 세션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아주대 최기련 교수는 석유순수입 국가들이 지역에너지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탄화수소연료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고 구조개혁의 핵심타겟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석유 및 가스의 자급능력 강화, 국경을 가로지르는 '개방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경로 확립과 같은 현안의 에너지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공동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평가와 미래 전망' 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전력연구원 윤명현 실장은 한전이 국내에서 유일한 발전회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주도해왔으며, 원자력에너지개발에 필요한 한전의 축적된 경험은 원자력을 처음 도입하려는 국가에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 문제와 최근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전의 원전운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한국의 장기전원개발, 전기사업의 구조개혁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새로운 방향' 세션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재훈 대체에너지보급팀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지난 98년 한국 정부는 대체에너지법

을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까지 국가에너지수요의 2%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명하였다.

포럼에 하루 앞서 17일 오후 개최된 WEC 아태지역회원국 회의에는 장기현 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는데, 로자리오(필리핀) WEC 아태지역담당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금년 11월 뉴델리 집행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WEC의 장에 입후보 하였으며, 동지역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회원국 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아태지역 전력거래구조' 최종보고서와 '아태지역 배출물거래 시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 1월에 지역에너지포럼을 개최하겠다는 싱가포르 국내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 동경포럼에 한국에서는 위에 언급한 발표자들 외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병호 감사, 강춘근 처장, 포스코개발(주) 김영준 부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박사, 현대건설(주) 은영기 부장, 장인영 부장, 한국수자원공사 김종수 부장, 김흥기 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지에서 IAEA의 전풍일 국장, APERC의 정용현 부소장 등이 회의 발표자로 참여하였다.